



네 얼굴이 5월 보고서

5월 일정

S

M

T

W

T

F

S

April 29th ~ May 3rd CAMP 1 * 3

4

5

* 영화관 및 Mall 견학

6

- Vandra YMCA
- Bolivali YMCA

- Vandra YMCA
- Procter YMCA

- Andheri YMCA

- Bolivali YMCA

- Andheri YMCA

May 6th ~ 10th Day Camp *



여원생일

11

May 11th ~ 15th CAMP 2 *

14

15

16

May 15th ~ 19th CAMP 3 *

17

18

19

20

* 어서오세요! 간사님

May 21th
주간평가 *

22

*간사님과 인도 나들이 1
(Elephanta Cave)

23

*간사님과 인도 나들이 2
(힌디 영화 관람)

24

* 안녕히가세요! 간사님

25

* 크리켓 경기 관람

26

* Andheri & CFES
* Juhu Center

27

* Vandra UYP
* Andheri & CFES

28

350PPM D - 7-

* Andheri & CFES
* Juhu Center

29

* Vandra UYP
* Andheri & CFES
* 'Saif' 생일 파티 참석

30

* Andheri & CFES
* Juhu Center

31

* 'Vidhi'의 점심초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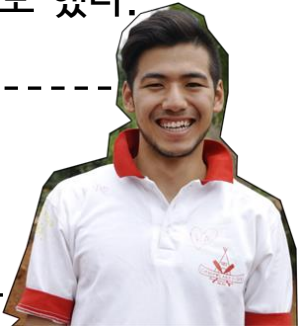




Day Camp (May 6th ~ 10th)

Mumbai YMCA에서는 Day Camp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Day Camp란 노래, 만들기 등의 체험활동을 하는 프로그램으로 camp이지만 밖에서 생활하는 것을 걱정하는 부모님을 위해 잠은 집에서 자는 착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약 6일간 Dare to Care라는 취지 하에 진행되었고 요일 별로 활동이 나누어져 있으며 하루는 Outing이라고 해서 Mumbai 주변 관광지를 탐방하거나 다른 Branch로 가서 자신이 속한 Branch에는 없는 것들을 체험한다. 우리는 Andheri, Bandra, Borivali, Procter YMCA에서 다른 프로그램을 보조하는 봉사자로 참여하기도하고 각 section을 맡아 프로그램을 진행하기도 하기도 했다.

* Branch 란?
Mumbai YMCA는 도시가 넓고 규모가 크기 때문에 Mumbai Central을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15개의 branch로 나누어져 있다. 각 Branch마다 담당하는 부분이 다르다.





Bandra YMCA <딱지치기, 지구시민교육, 보조활동>

이틀 간 오전시간에 참여했던 Bandra YMCA Day camp. 우리는 그 곳에서 딱지치기, 지구시민교육 그리고 보조활동을 했다.

‘딱지치기’는 접는 것을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있었지만 다른 봉사자의 도움과 아이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즐겁게 활동을 할 수 있었다. ‘세계가 만일 100명 마을이라면’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을 꼽자면 언어의 문제가 아니었을까 싶다. 한국어로 진행해도 어려운 것을 영어로 해야 하니 진행도 힘들었고 아이들을 이해시키는 것도 힘들었다. 거기에다가 처음 준비하고 진행하는 것이라 미흡한 점이 많았고 마지막에는 시간에 쫓겨 아이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주지 못한 것 같아 미안함과 아쉬움이 남았던 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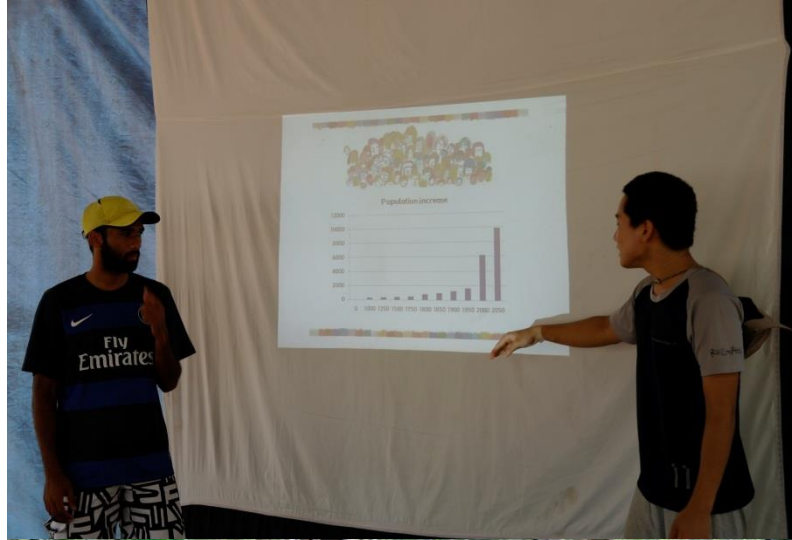
하루 썩 우리가 준비한 프로그램을 마치고 나면 우리는 봉사자로서의 역할에 충실했다. 춤이면 춤, 종이접기면 종이접기! 그 순간 만큼은 아이들을 위한 만능엔터테이너가 아니었을까 라고 생각한다.

Bolivali YMCA <지구시민교육, 보조활동>

캠ป์에서 만난 친구의 활약으로 '급'으로 참여하게 된 Bolivali Day camp. 이 곳에서는 지구시민교육과 보조활동을 했다. '두 번째니 만큼 더 잘해가자!'라는 마음으로 Bandra에서의 미흡했던 점을 보완해 진행했던 '세계가 만일 100명의 마을이라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Bandra에서 보다는 잘하지 않았나(...). 영어로 진행하는 것도 여전히 어려웠지만 든직한 친구 깔튼의 도움으로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리는 뱀 쇼를 보고 레고 sir과 함께하는 조형물 만들기 수업에 봉사자로 참여했다. 소 똥과 진흙을 만지며 순수한 동심의 세계로 돌아 갈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는 보고서용 멘트. 아직도 손에서 맴돌던 소 똥의 향기가 잊혀지지 않는다.

이 곳에 처음 참여했던 날 우리는 우리를 이 곳으로 이끈 친구와 아이들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 라는 고민을 해야 했다. 아이들을 봐줘야 하는데 친구는 일은 안하고 우리한테 장난만 치니. 어찌됐건 우리의 선택은 아이들이었고 다음 시간에는 아이들에게 집중했다.



Procter YMCA <M-seal Work, 응급처치법 청강>

약 반나절 정도 참여했던 Procter YMCA Day camp. 우리는 이 곳에서 'M-seal work'를 진행했다.

M-seal이란 지점토와 비슷한 종류의 아이들 미술교구(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중 설명서를 읽어 본 Ashish의 말로는 M-seal은 접착제 종류라고 한다.)로서 이것으로 아이들은 자연과 관련 된 것들을 만들고 그 위에 신문지를 이용해 모자이크를 했다. 처음에는 모자이크 대신 물감으로 색칠을 하려고 하였으나 아이들에게 Dare to Care라는 day camp의 취지를 다시 한 번 심어주기 위해 신문지를 이용한 모자이크를 선택했다. 이 프로그램을 하기 전에 아이들이 도자기 만들기를 해서 이것을 시시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히도 아이들 모두 즐겁게 활동에 참여했고 몇몇의 걸작이 탄생하기도 했다.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Procter YMCA 관계자 아물(Amul/남/나이 모름)을 배려로 캠프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응급처치법을 들을 수 있었다.





Andheri YMCA <M-seal work, 보조활동>

현재 우리가 지내고 있는 Andehri YMCA에서도 Day camp를 진행했다. 취소 됐다가 미뤄졌다가 이래저래 일정의 변화가 많았지만 무사히 잘 진행되었고 우리는 M-seal work와 보조활동을 했다.

M-seal work는 Procter에서 진행한 것과 같이 진행했다.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 끈적끈적한 것이 싫어 활동에 소극적이었던 아이들도 있었다. 소극적인 아이들 다독이랴 열심히 하는 아이들 따라가랴 힘들었지만 마지막 결과물을 보고는 뿌듯함을 느꼈다.

Day Camp 첫 날, 우리는 '아이들에게 한국어노래 가르치기'라는 생각지도 못한 과제를 맡게 됐다. 급하게 무엇을 가르칠까 라는 고민을 하는 중에 Ashish가 단어와 리듬이 반복되는 '귀요미 송'이 어떨겠냐 라는 의견을 냈고 우리는 아이들에게 귀요미 송(하...)을 가르쳤다. 귀요미 송을 가르치면서 한국어로 숫자 세는 법도 알려줬다. 우리는 6까지만 알려줬는데 아이들의 요청으로 10까지 알려주게 되었다. 한국어에 관심을 가지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꼈던 시간이었다.





Camp Lakeside (May 11th ~ 19th)

인도 활동의 꽃은 캠프라고 했던가! 1차 캠프부터 3차 캠프까지 활동의 꽃을 만개한 11기 인도 팀!

Mumbai에서 차로 약 4~5시간을 가야 하는 Nilshi Camp Lakeside(자리가 없어 앉지도 못하고 서서 가야 했다는 슬픈 얘기). 평화롭고 고요한 마을에 위치한 campsite는 자연과의 조화, 아름다운 풍경 등 방문하는 사람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우리는 이 곳에서 1차 캠프(4월 29일 ~ 5월 3일/ 자세한 사항은 4월 보고서 참고), 2차 캠프(5월 11일 ~ 15일), 3차 캠프(5월 15일 ~ 19일)가 진행되는 약 14일간 생활했다.

캠프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더 성장 할 수 있었다는 인도 팀. 캠프 참여 중에는 왜 인도 활동의 꽃이라는 것인지 이해 할 수 없었지만 지나고 나니 왜 꽃인 줄 알 수 있었다는 후문. (SNS 친구가 셀 수 없이 늘어났다는 건 안 비밀)





2차 캠프 (May 11th ~ May 15th)

11살 ~ 14살 사이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진행 된 2차 캠프.

2차 캠프에서는 1차 캠프와는 다르게 우리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이 마련됐고 우리는 환경관련 O/X퀴즈와 Pet병을 이용한 볼링을 준비해갔다. O/X퀴즈는 나이 대에 따라 이해도가 달라졌다. 나이가 많은 아이들은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하는 반면 나이가 적은 아이들은 많은 아이들을 따라 다니며 정답을 맞추기도 했다. 볼링게임은 봉사자뿐만 아니라 YMCA 관계자도 관심 있게 지켜 본 게임이었다. 아이들 모두 불타는 승부욕으로 참여했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이 외에도 많은 활동(수영, Tracking, Activity Zone 등)을 따라 다니며 아이들과 함께했고 많은 정을 쌓을 수 있었다. 아이들 모두 한국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였고 우리를 볼 때 마다 '안녕!'이라며 인사해 우리를 즐겁게 해주었다.



3차 캠프 (May 15th ~ 19th)

1차, 2차 캠프와는 다르게 Pritie와 Anand는 Senior그룹을, Pari는 Junior그룹, 그리고 Ashish는 Activity팀으로 나누어 활동했던 3차 캠프 (Senior의 훈훈한 외모에 우리의 마음까지 훈훈해졌다는...♡). 1차 캠프와 같이 우리의 주된 임무는 맡은 그룹을 잘 인솔해 안전하게 캠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것! Pari는 그룹을 맡지는 않았지만 여러 그룹을 보조하며 맡은 임무를 잘 소화했고 Ashish 역시 자신이 맡은 역할을 잘 소화했다.

3차 캠프가 다른 캠프와 다른 또 한가지는 Lakeside가 아닌 다른 산 속에서 하루를 지낸다는 것이다. 그 곳으로 가기 위해서는 Tracking을 해야했다. Senior와 Junior가 가는 길이 달랐는데 Senior는 직각에 가까운 돌길을 올라야 했다는 후문. 야영지로 가는 도중 비가 와 야영은 취소 되었지만 비를 맞으며 Tracking을 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었다.

계속 된 캠프 일정에 피곤하고 이런저런 일들로 마음이 힘들었지만 힘듦보다 즐거움이 더 컸던 3차 캠프가 아니었을까 싶다.





그 날이 왔다, 중간평가 (May 21th)

모두가 두려워하던, 그 날이 왔다. 바로 '중간평가'. 필리핀 팀의 가슴 아픈 소식으로 인해 필리핀 팀 이후의 모든 중간평가는 잠정적으로 연기가 되었다. 원래 인도 팀은 필리핀 팀 후에 중간평가가 잡혀 있어 연기되는 것이 당연했겠으나 슬픈 소식을 접하기 전에 이미 인도에 오신 최현욱 간사님 덕에 우리는 원래 일정대로 중간평가를 진행 할 수 있었다.

캠ป์를 다녀 온 후 바로 진행 된 중간평가라 많은 부담이 되었겠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Pari와 Anand는 무사히 프레젠테이션을 마쳤고 이 후의 동영상,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었던 개인소감까지 잘 끝냈다.

그 동안 앞 만 보고 오느라 뒤를 돌아 볼 시간이 없었는데 이번 중간평가를 준비하며 지나온 시간들을 다시 한 번 생각 할 수 있어 뜻 깊었던 것 같다.





중간평가는 끝났다.

즐거웁시다 !

정겨운 한국 음식들과 함께 인도로 날아오신 간사님! 간사님이 오신 첫 날 우리는 시원하게 잔치국수와 비빔국수를 먹었다.

중간평가가 끝난 다음 날 간사님과 함께 'Elephanta Caves'에 다녀왔다. 날이 더워 힘들었지만 즐거웠...을거예요. 저녁은 Paul, Jinson, Semion의 가족과 함께 정말 맛있는 해산물을 먹었다.

간사님이 떠나시는 날엔 Robin과 점심 식사 후 간사님과 힌디 영화를 보고 mall 구경을 했다. 그리고 Richard, Allen과 함께 T.G.I Friday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눈물과 함께 간사님을 보내드렸다.



Juhu Center (May 26th ,28th ,30th)

거의 한달 만에 다시 찾은 Juhu center. 우리는 아이들과 함께 어떤 것을 할까 고민하다가 캠프에서 했던 활동들을 아이들과 하기로 했다. 미션 사진 찍기, 캠프 송 부르기, 킹콩게임, 크리스게임 등등.

무엇이든 시작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활동적인 아이들이라 뭘 하든 열심히 즐겁게 잘 따라준다. 특히 미션 사진 찍기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워낙 사진 찍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불타는 열정으로 참여해 우리 역시 즐겁게 활동 할 수 있었다.

그리고 30일에는 딱지치기를 함께했다. 다른 기수들과 함께 해봤던 놀이라 많은 아이들이 알고 있었다. (심지어 어떤 아이는 우리가 모르는 딱지 접는 법을 보여주기도 했다.) 몇몇의 아이들이 반칙을 써서 힘들었지만 우리의 딱지 깡패(Anand), 딱지 양아치(Ashish)가 속 시원히 해결했다.





Unemployed Youth Program (May 27th, 29th)

Juhu와 같이 약 한달 만에 다시 시작한 U.Y.P !

29일에는 Bandra YMCA에서 하는 U.Y.P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N.G.O인 'Uva Parivartan'을 다녀왔다. 이곳은 어려운 환경과 개인적인 사정으로 정식적인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이들에게 직업 교육을 통해 취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곳이다. 청년들은 이 곳을 통해 기술을 배워 취업을 하기도 하고 자신만의 가게를 차리기도 한다고 한다.

우리는 그 곳의 책임자와 얘기를 하며 인도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해 더 잘 알게 되었고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문제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350PPM 캠페인 준비

바블 5월을 대비해 4월부터 캠페인 준비를 시작했다는 네 얼간이. 일정이 비는 날이면 무조건 350PPM 준비를 했다는데... 다가 올 캠페인을 위해 5월 말부터는 피켓 및 포스터 제작, 포토 존 만들기 등 글 쓰고 칠하느라 허리 필 틈 없이 바빴다는 인도 팀. 항간에는 Pritie가 자기보다 나이 많은 오빠한테 소리 지르는 걸 들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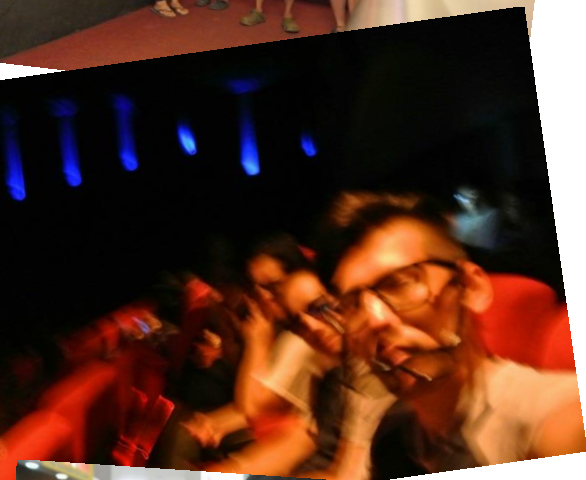
350PPM & Meatless Monday

*** 사진이 없을 뿐, 철저히 지켰음을 알려드립니다 ***

매주 월요일(불가피한 사정 시 회의 후 요일 변경)이면
Meatless라는 걸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요리사님 덕에
항상 미리스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계단 사용하기, 개인 물병 사용하기 등 350PPM도 철저히 지킵니다.

모두들 화이팅 !



영화 관람 및 Mall 구경 (May 5th)

처음으로 한가했던 (사실은 회의하기 싫어서) 월요일을 맞아 미루고 미뤘었던 영화를 관람하기로 한 네얼간이! 버스를 타고 5~10분 거리에 있는 Infiniti mall이라는 곳으로 롤루랄라 신나게 이동! 가기 전에 아이스크림 내기는 필수!! 참으로 오랜만에 Pritie가 내기에 저서 단일 항목 최고가를 찍었다는(하...눈물 좀 닦고 갈게요.) 영화도 보고 Mall구경도 하고(Pari는 이 곳에서 서울을 느꼈다.) 맛있는 저녁도 먹고 이런 저런 얘기들을 하며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고한다.



Pritie ! 인도에서 생일 맞은 날 (May 10th)

5월 10일. 인도팀의 팀장이자 막둥이인 그녀의 생일이 찾아왔다. Day camp 친구들과 생일파티를 하고 밤에 조촐하게 팀원들의 축하를 받았다는 Pritie. 줄 수 있는게 술 뿐이라며 맥주를 사줬다는 팀원들. Pritie가 과음해서 다음 날 캠프 출발하기 전까지 헤롱헤롱 했다는 건 팀원들끼리의 비밀이라고.



줄 수 있는게 Queenfisher 밖에 없다.
가전거라곤 Queenfisher 밖에 없다.



크리켓 경기 관람 (May 25th)

축구보다 크리켓에 열광하는 인도 !
인도의 뜨거움을 느끼기 위해 우리는 IPL (India Premier League)를 보러 갔다. 크리켓의 인기가 높은 만큼 경기 티켓을 구하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 하지만 우리의 자랑스러운 코디네이터인 Jinson의 노력으로 우리는 티켓을 구할 수 있었다. 처음에는 룰을 몰라 지루한 감이 있었지만 시간이 갈 수록 룰을 알게 되면서 경기를 즐길 수 있었다. 우리는 Mumbai Indians를 응원했고 이 날의 승자는 당연히 Mumbai Indians였다. 그리고 후에 알았는데 이 날 경기는 지금까지 IPL 경기 중 손에 꼽을 정도로 멋진 경기였다고 한다.





스타*스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한 번 다녀와보겠습니다.

Pari와 Pritie의 스*벅스 탐방

Pari의 아이팟 케이블을 사기 위해 들린 Apronix옆에 있었던 *타벅스. 참새가 방앗간 지나치지 못하듯 우리도 카페를 지나치지 못한다! 자연스럽게 들어가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겼다는 두 단원, 때릴까?





친구 'Vidhi'의 점심 초대 (May 31th)

31일, 우리는 캠프에서 만난 친구인 'Vidhi'로 부터 점심 초대를 받았다.
캠프가 끝난 후 오랜만에 보는 친구들과 함께 한 점심 식사!
우리는 처음으로 인도의 가정 집을 방문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고
친구들과 어울리며 이들 역시 우리와 다를 것 없는
20대의 청춘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Anand

이곳에는 각종 변들이 많다.
때문에 거리를 걸을 때면 자연스레 밑을 보고 걸게 된다.
그렇지 않고 앞만 보고 가다가 길거리에 각종 변들이 많아서 밟기 십상이다.
급히 앞만 보고 가다가 똥을 밟은 순간 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누군가는
금세 온 거리를 더럽힐 것이고 아무도 그의 걸은 찾지 않을 것이다.

가만히 멈추어 신발 밑바닥을 확인해 보았다.

한걸음 한걸음, 느리지만 올바르게 걷자.



Ashish

1. 나에게 다가오는 관심들을 귀찮아서, 혹은 짜증나서 뿌리친 것. 어느덧 편해진 팀원들에게 쉽게 말하고 짜증냈던 것. 중간평가 때 맛있는 음식 더 많이 먹지 않은 것. 캠프에서 먼저 더 다가가지 못한 것. 친구 결혼식에 전화 한 통 안한 것. 의미없이 흘러보낸 시간들. 책 읽지 않은 것. 가족한테 더 따뜻하게 연락하지 못한 것. 늦은 밤에 밥 많이 먹은 것. 힌디 공부하지 않은 것.

2. 후회하는, 후회하고 있는 것들.

3. 나는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후회를 하면서 살아간다. 어떤 일이 끝났을 때, 어떤 사람과의 관계가 정리되었을 때, 특정한 장소를 떠날 때, 아끼던 무언가를 잃어버렸을 때. 삶의 많은 순간 순간들을 후회한다. 그렇게 빨리 끝내고 싶었던 군대조차도 지나고 나니 아쉬움과 후회로 남는다. 밥을 먹고 금방 배고파지는 것을 느끼면서 더 많이 먹을 걸하고 후회한다. 후회는 나에게 일상이다. 크고 긴 일들부터 작고 짧은 일들까지.

4. 그때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나라도 더 보고 느끼고 해보고, 더 많이 경험 해볼걸. 돌이켜 보면서 그런 후회를 할 때가 있다. 안타까우니까. 내가 할 수 있었던 것들이니까. 시간은 지나갔고 그때 그 시간이 내 인생에서 마지막인 그 시간이었으니까. 그때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리우니까.



5. 후회할 짓을 하지 말란 말. 정말 후회할 짓은 하면 안되는 것일까. '후회'라는 단어가 '짓'이라는 단어에 연결될 정도로 부정적인 것일까. 후회는 언제나 나쁜가. 그렇다면 후회가 없는 삶은 완벽하다고 할 수 있을까. 후회가 없으면 아쉽지 않다. 후회가 없다는 것은 일종의 완벽이 아닐까. 내가 했던 일들에, 사랑에, 경험에 후회하는 것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의미일 것이다. 하지만 그런 완벽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 갇혀있는 완벽일 것이다. 내가 후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더 할 수 있었던 일들은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후회들이야말로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찌보면 후회를 하지 않은 것이라는 말보다는 후회를 하지 못한 것이라는 말이 더 정확할 수도 있을 것 같다.

6. 후회를 하고 그리워 하고 아쉬워 하기에 우리의 과거는 더 아름다울 수 있고, 추억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내가 미처 더 하지 못했던 일들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동력이 되어, 후회하지 않는, 만족하는 사람은 다시 가보지 못할 나의 과거 속으로 다시 한번 가 볼 수 있는게 아닐까.

7. 지나고 돌이켜 보면 짧은 이 5개월을 정말 많이 후회할 것이다. 나를 힘들게 하던 많은 일들이 그랬듯이, 지나고보면 정말 사소하고 작은 일들로 보이는 것처럼. 그때 내가 더 참을걸, 내가 더 할걸, 하나라도 더 할걸 하고 후회할 것이다. 나는 후회하길 바란다. 그래야 돌아올 수 있으니까. 한번이라도 더 그리워하고 아쉬워 할 수 있으니까. 후회하지 않는 것이 무서우니까.



Pari

한국으로 돌아가는 꿈을 꿔다. 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데 왜 그런 꿈을 꿔는지는 모르겠지만. 공항에서의 허무함이 꿈이 아닌 것 처럼 생생하게 느껴졌고, 꿈에서 깬 이후로도 그 허무함을 절대 떨쳐버릴 수 없었다. 한국에 돌아가면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3개월과 앞으로 남은 2개월이 꿈처럼 느껴질 테고, 현실에 부딪히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니까 부쩍 두려웠다. 꿈꾼 날 이후부터 한국에 돌아가면 어떤 느낌일지 생각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가끔씩 뭍바이의 좋은 곳을 갈 때, 이동 중 로컬버스 안에서 한국노래를 들을 때, 내가 가지고 있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을 볼 때 나는 뭍바이에서 한국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 한국에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기 보다는 그냥 뭍바이를 진정으로 느끼는데 방해가 된다고 해야 하나.. 그 느낌들이 굉장히 묘하고 싫은 건 아니지만 내가 한국에 돌아갔을 때 이곳에서의 추억을 강하게 기억하기 위해선 적어도 지금부터는 내 나라의 흔적들은 잠시 내려놓고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의 느낌, 분위기를 많이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기억하려 해야 한다. 지금까지 라온아띠라는 이름으로 정작 나와 내가 느끼고 싶은 사소한 주변들을 외면할 수 밖에 없는 채 씬없이 달려온 건 아닌지. 이제 2014년 이곳의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뿐이고 난 최선을 다해서 그 허무함의 깊이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Pari

나에게 5월은 내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일 수 없었던 달.
이제 2014년 이곳의 나를 기억할 수 있는 시간은 두 달뿐이고 난 최선을 다해서 그
허무함의 깊이를 줄이려고 할 것이다. 나에게 5월은 내 몸과 마음이 나의 것일 수
없었던 달. 팀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만큼 바빴고
사람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빠르게 지나간 나의 3개월 동안 나는 지금까지
무엇을 했는지, 많은 일정 안에서 바쁘게 지나갔는데 왜 지금 내 안의 나는 풍요롭게
느껴지지 않고 뭔가 허전하고 마음 한 구석이 텅 빈 느낌이 드는지.. 이기적이긴
하지만 느리게 지금 이곳의 느낌을 기억하기 위해서 앞으로 2달 동안의 나는 조금은
여유 있..을 수 있으면 여유 있고 싶다. 물론 내가 인도에 있는 한 라온아띠의 삶은
끝은 없겠지만 그 안에서 여유를 찾아 가는 게 나에게 있어선 가장 어렵고도 훌륭한
방법이라고.. “집중하자” 집중하는 것이 정식적인 일정 이외에도 이곳의 사소한
것까지 기억하기 위해선 집중 하는 게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 같다.



Pritie

처음으로 각 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토요일. 나는 혼자서 기차를 타고 싶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최대한 먼 곳으로 기차표를 끊었다. 하지만 나는 기차를 타지 못했다. 몇 번 플랫폼에서 기차를 타야하는지 몰랐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물어봤지만 다들 모른다고했다. 그래서 나는 기차 타는 것을 포기하고 기차 역 주변을 돌아다니다가 집으로 돌아왔다. 그날 밤, 팀원들과 하룻동안 있었던 일에 대해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 나는 기차 여행을 못했다고했다. 그러자 팀원들이 그랬다. 못했다가 보다는 하면 할 수 있는데 안한거라고. 기차역에서 이걸 생각하지않았던 것은 아니었다. 솔직히 기차표 검사를 항상 하는 게 아니니 목적지가 달라도 충분히 다른 기차를 탈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저런 걱정들이 앞섰고 그 걱정들을 앞세워 나는 기차를 탈 수 없는 이유를 만들었던 것 같다.




Pritie

지금까지 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활동에 있어서도 자신감 보다는 두려움을 먼저 느꼈던 것 같다. 만약 누군가와 대화를 해야하는 상황이 생기면 단지 친구와의 전화 일 뿐이지만 잘 못 알아 듣는다는 생각에 손사레를 치며 거부했고, 내가 앞서서 얘기해야하는 상황에서도 못한다는 생각에 뒷 걸음질쳤다. 두려움을 넘어 설 생각보다 도망치는게 먼저였고 어떡하면 그 상황에서 벗어날까 생각했다. 그래서인지 지금까지 이 곳에서의 생활을 뒤돌아보면 허무한 것들 투성이인 것 같다. 내가 두려움을 이기고 좀 더 적극적으로 사람들에게 다가갔다면, 내기로 진행자를 정하지않고 '내가 할게'하고 먼저 나섰다면. 아마 허무함이 조금은 채워지지 않았을까.

앞으로 남은 날 동안 두려움을 이기는 법을 익혀야겠다.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팀원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보다 스스로 해결하려 노력하고. 두려움을 이기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보다 두려움에 잡아 먹히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기를 바라며. 좀 더 성장하길.





캠핑에서 :) 





어느 멋진 5월





Pritie랑 Pari

느낌 아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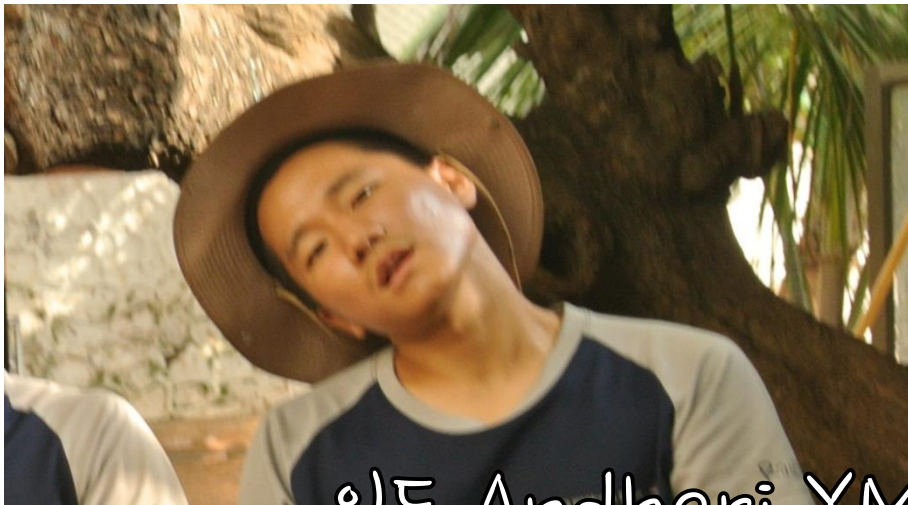


딱지 강패

누나!! 저 딱지 강패가 내 딱지 다 가져가어!!!!



인도 Andheri YMCA에는 김민교가 산다.



인도 Andheri YMCA에는 이승철도 산다.

어서 와

어서 와



Thank You :)